

이기는 삶

썩은 가지는 잘라내라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여 차마 썩은 가지와 비뚤어진 가지를 잘라내지 못한다면 점차 말쑥한 가지까지 썩어들어가 결국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이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순이 나서 전보다 더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더욱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가?

가지치기 왜 해야 하나

첫째,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야 한다. 그늘에 밀려 있는 가지가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둘째,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라야 한다. 안으로 자라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한 가지도 썩는다. 넷째, 서로 영긴 것을 잘라내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위의 네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할까 염려되어, 또는 받아들이지 않아 큰소리가 오가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되어 말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아래의 네 가지 요소에 해당된다면 욱먹을 각오하고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

첫째, 신앙인으로서 빛을 가리는 행동은 제재(制裁)를 가해야 한다. 고참(古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자신의 언행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바로잡아준다고 충고하는 행위나, 화가 난다고 자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과감히 잘라

내야 한다.

둘째,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 혼자만 진리 말씀을 알고 혼자만 실천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생활로 일관하며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셋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자나 나의 신앙을 썩어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아파도 잘라야 한다. 아까워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들도 그 영혼이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영적 독버섯은 뽑아버려야 한다.

넷째,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반복하는 관계나 서로 간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

라고 했다. 남의 돈을 쓰고도 갚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나 남의 돈을 투자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헛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복 받을 행위를 해야 복 받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되, 원망이나 저주를 받아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지탄 받을 일을 하면 지탄받는다. 가장 평범한 이치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행위나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건강한 조직과 건전한 신앙인을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자.*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메시아 구세주님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symbol of Christ?

만약 누구나도 이슬성신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성신은 사망을 이긴 이긴자 구세주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 If anyone drinks the Dew Spirit, that person shall live forever. Because the Dew Spirit is the Spirit of the Victor Christ who has overcome death.

그러나 이슬성신은 주인공 이긴자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 But the Dew Spirit cannot pour out until the day of the Lord comes.

우리의 이긴자 구세주 조희성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슬성신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 Our Lord Victor Christ Cho Hee Sung is pouring out the Dew Spirit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성신으로 이스라엘에 함께하시며, 그 이스라엘은 백합꽃같이 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Bible says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will blossom like a lily.(Hosea 14:5)”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이긴자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 In the above scriptures, ISRAEL means WINNER. Since God gave the title of ISRAEL to Jacob who wrestled with an angel and overcome, ISRAEL is the same meaning as the Victor.*

by Alice

세례요한의 잘못된 신관(神觀)

신관(神觀)이란 신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세례요한은 유대 사람으로서 성경 마태복음 3장 16-17절, 마가복음 1장 9-12절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 대 제사장의 아들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상류층 금수저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덕망 높은 사람이었다.

공중신의 아들인 예수

성경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나이 하면서 마지 못해 세례를 베풀기로 허락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공중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들은 세례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공중하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면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외쳐댔다. 이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_ 요아힘 파티니르(Joachim Patinir) 1510년 작

만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시발점이다.

사실 세례요한의 신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다 공중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오 하나님 하면서 공중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관으로 말미암아 그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제에 대해 착각과 착오를 하고 있는지

금은 고인이 되고 없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 잘못된 책임은 100% 세례요한이 져야 할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말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그들은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성경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은 피로써 마음이 조성되는고로 마음이 영이라면 피가 영이요 피로써 살이 되고 몸이 되는고로 몸이 영이다.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혼은 마귀의 마음이다.

공중신은 마귀다

사람 몸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병존체이다. 하나님의 신이 마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약해져서 마귀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는 성경말씀대로 하면 공중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는 천신재심(天神在心)이라 하겠다.

구세주 정도령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

중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요 욱심인 나라는 의식이 마귀신이자 사람을 죽이는 사자귀신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어둠의 신이 다스리는 마귀세상을 뒤집어엎어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대명천지 밝은 세상을 누리봅시다. 분명히 성경에는 공중신이 마귀신이요 마음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현명한 목자가 없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으며 한 사람의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 2000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다 속아서 살아왔다. 21세기 오늘 이후부터는 공중에는 마귀가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사상과 이 학설로 바뀌

지면 이것이 천지개벽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천동설을 정설로 알고 있던 로마수녀부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지동설이 과학적인 진리가 되었듯이 공중신은 마귀신인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학설이 종교적인 진리가 될 것이다. 이 학설이 세계 만민들이 다 알게 될 때에는 천동설 지동설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켜 천지개벽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양현 정보

신간 안내

정도령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